

## 『서유기』 車遲國 도술시합의 불교적 독해

강경구\*

### 【목 차】

1. 서론
2. 흩어짐[散]과 돌아옴[還] — 500 승려의 해방
3. 對法과 중도의 실천 — 三清觀 뒤집기
4. 무너짐과 소생 — 기우제 시험
5. 주객에 대한 집착의 교정 — 雲梯顯聖과 隔板猜枚시험
6. 죽어서 살아나기[大死卽活]  
— 목 자르기, 배 가르기, 끓는 기름에 목욕하기 시험
7. 결론

### 【초록】

『서유기』는 삼장, 孫悟空 일행이 서천여행을 하면서 겪는 81가지 고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81難은 완전한 진리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거치게 되는 점차적 단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에피소드는 자기완결성과 전후맥락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그래서 출발에서 도착에 이르기까지의 맥락적 관점에서 보면 전체 81난은 하나의 큰 원형고리를 형성하며, 자기완결적 관점에서 보면 각 에피소드는 전체의 큰 고리에 꿰어지는 작은 원형고리들이 된다. 그것은 중국선에서 완성된 돈오선과 점수선의 도리를 하나로 통합하여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각각의 에피소드가 자기완결성을 갖고 어떻게 전체적인 전후맥락성을 구성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車遲國의 도술시합이 中道, 對法 등과 같은 불교적 진리와 실천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西遊記, 81難, 車遲國, 中道, 孫悟空, 對法

\* 동의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kkkang@deu.ac.kr)

## 1. 서론

『서유기』는 삼장일행이 서천여행을 하면서 겪는 81가지 고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81가지 고난은 완전한 진리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거치게 되는 점차적 단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에피소드는 자기완결성과 전후맥락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출발에서 도착에 이르기까지의 전후맥락적 관점에서 보면 전체 81난은 하나의 큰 원형 고리를 형성하며, 자기완결적 관점에서 보면 각 에피소드는 전체의 큰 고리에 꿰어지는 작은 원형 고리들이 된다. 그리고 다시 이 작은 원형 고리, 그러니까 각각의 에피소드에는 일련의 도술시합들이 더 작은 원형 고리로 꿰어져 있다. 그것은 중국선에서 완성된 돈오선과 점수선의 도리를 하나로 통합하여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전체적 여정에 81난의 순차적 단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점수선을 수용한다.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고난의 극복이 곧 깨달음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돈오선을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점수라는 큰 고리에 돈오라는 고리가 꿰어져 있는 구조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서유기』 도술시합의 이러한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제44회, 제45회, 제46회에 그려져 있는 車遲國의 고난을 불교적으로 독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車遲國의 고난은 특히 비 내리기 시합, 참선 시합, 상자속의 물건 알아맞히는 투시력 시합, 목 잘랐다 붙이기 시합, 배 갈랐다 붙이기 시합, 기름 솥에 목욕하기 등의 죽었다 살아나기 시합과 같은 일련의 도술시합이 연결되고 있어 그 구조와 의미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텍스트에 해당한다. 특히 그것들은 바른 법의 눈뜸[聞] → 법과 함께 하는 사유[思] → 법다운 닦음[修] → 법다운 깨달음[證]의 구조를 공유한다. 나아가 각각의 에피소드는 본래 깨달음[本覺]으로 돌아가는 깨달음의 실현[始覺]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돈오의 작은 고리를 형성한다. 여기에서는 자기완결성을 갖는 각각의 에피소드가 어떻게 전체적인 전후맥락성을 구성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각각의 도술시합이 어떠한 불교적 메시지를 상징화하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 2. 흩어짐[散]과 돌아옴[還] — 500 승려의 해방

삼장 일행은 車遲國에 이르러 승려들이 도사들의 종노릇을 하는 상황을 목격한다. 20년 전 나라에 가뭄이 들어 기우제를 지냈는데 도사들은 성공하고 승려들은 실패하여 이후 왕명에 의해 승려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도사들의 우두머리는 虎力大仙, 鹿力大仙, 羊力大仙이었다. 손오공은 직벽의 험준한 절벽 위로 수레를 끌어올리는 불가능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승려들을 구하기 위해 감시하던 도사들을 죽이고 수레를 부숴버린다. 그리고는 500 승려들에게 자신의 털을 호신부로 주어 흩어지도록 하면서 이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와 털을 반납하도록 명령한다.

에피소드의 시작부가 되는 이 이야기에는 500 승려, 절벽으로 끌어올리는 수레와 세 신선, 손오공이 털 조각을 나누어주는 상황 등이 해석을 기다리는 비유의 묶음으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500 승려는 아라한과를 성취한 부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비유이다. 부처님의 제자가 실제로 몇 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설이 다양하지만 많은 경전에서 500명의 아라한을 말하고 있고, 특히 이 에피소드의 원형으로 보이는 『법화경』 「오백제자수기품」에는 부처가 500명의 아라한에게 설법을 하고 授記를 주는 상황이 그려져 있다. 또 「비유품」에는 퇴락하고 위태로운 낡은 집에 불이 일어났는데 그 곳에 사는 500명의 자식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상황이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500명의 제자, 혹은 500명의 자식들은 아라한들로서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는 번뇌를 끊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다. 그런데 『법화경』, 『금강경』 등 대승경전에 의하면 이들 아라한은 대승의 설법을 듣고 전에 없던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미 깨달음을 성취한 아라한들이 왜 다시 설법의 청취자가 되는가? 그리고 이들의 과거 깨달음이 무엇이기에 대승경전의 설법을 듣고 전에 없던 깨달음을 다시 얻게 되는가? 대승교학에서 불 때 소승과 대승을 가르치는 기준은 아집만 내려놓았는가[人無我], 법집까지 내려놓았는가[法無我]<sup>1)</sup>에 있다. 소승은 아집을 끊어 소승의 최고과위인 아라한과를 얻으며 이것을 해탈이라 한다. 그러나 대승에서는 아집을 끊은 뒤에도 제7식 법집[俱生法執]<sup>2)</sup>과 제8식 아뢰아식을 끊는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며 그 궁극을 성불에 둔다.

대승경전은 주로 소승 아라한을 청법자로 설정하고 그들이 未曾有의 깨달음을 고백하는 상황의 묘사로 설법을 시작하거나 끝맺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집착, 즉 아집의 끊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리에 대한 집착, 즉 법집의 끊음으로 나아가는 머물지 않는 수행의 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대승경전이 모두 그렇지만 특히 『법화경』에는 이러한 의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비유품」에는 500 아라한,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여래의 계승자로 인정받아 지혜제일, 법왕자로 호칭되던 사리불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그 때 사리불이 기뻐 뛰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면서 말하였다. 이제 세존께 이러한 법문을 듣고 마음이 크게 기뻐 전에 없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 저희들은 방편으로 상황에 따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처음의 설법을 듣고는 곧 그대로 믿어 받들고, 사유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옛날부터 밤낮 항상 스스로 자책하여왔는데, 지금 부처님에게 들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법을 듣고 모든 의혹을 끊고, 몸과 뜻이 태연하여 바로 편안함과 고요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진

1) 아집은 分別我執과 俱生我執으로 나뉘는데 分別아집은 제6식 차원, 구생아집은 제7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집착이다. 사대오온으로 이루어진 색신을 나라고 집착하는 일은 제6식 분별적 차원에서 일어나므로 이를 分別아집이라 부른다. 이것을 끊으면 소승아라한이 된다. 이에 비해 구생아집은 제7식차원에서 일어나는 집착으로서 제8식의 見分을 자아로 집착하는 일을 가리킨다. 소승은 제7식, 제8식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구생아집의 단멸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2) 법집은 6진에 대한 제6식 차원의 집착과 호오에 따른 취사선택[분별법집], 아늑다라삼막삼보리라는 깨달을 진리가 따로 있고, 그것을 향해 수행하는 주체가 있다는 제7식차원의 집착[구생법집]으로 나뉜다.

정한 부처님의 아들이며, 부처님의 법문으로 태어났으며, 법에서 화생하였고, 불법을 뿔으로 나눠받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sup>3)</sup>

여기에서 사리불은 여래가 방편으로 설한 설법과 그것의 실천으로 얻은 성취를 궁극의 진리로 집착한 과거에 대한 회한을 말하고 있다. 바로 그 방편설법이 『법화경』과 『서유기』에서 말하고 있는 수레이다. 『법화경』에서는 집이 불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속에서 놀고 있는 500의 자식들을 구하기 위해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가 그들이 나오자 흰 소가 끄는 큰 수레[大白牛車]를 선물하는 아버지의 지혜와 자비를 그리고 있다.<sup>4)</sup> 여기에서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는 500의 자식들은 오욕락에 빠져 살고 있는 삼계의 중생에 대한 비유이다. 세 대의 수레는 성문, 연각, 보살의 방편설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羊車=소승, 鹿車=연각, 牛車=대승, 大白牛車=일불승의 비유관계에 있으며 경전은 이를 통해 會三歸一<sup>5)</sup>의 이치를 설파하고 있다.

다만 『법화경』에서 수레를 끄는 것이 양, 사슴, 소였는데, 『서유기』에서는 호랑이[虎力], 사슴[鹿力], 양[羊力]으로 변용되어 있다. 소를 으뜸으로 삼는 인도와 호랑이를 으뜸으로 삼는 중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변용으로 보인다. 물론 그 핵심이 방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실상에 바로 눈뜨는 일에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수레는 길을 가기 위한 것이고, 배는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다. 수레가 아깝다고 길 없는 산으로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일은 어리석다. 배가 아깝다고 강을 건넌 사람이 육지에서 뗏목을 지고 가려는 일은 어리석다. 이에 손오공은 수레를 절벽 아래로 던져 부숨으로써 500 승려의 집착의 대상을 지워버린다. 그리고는 노예생활을 하고 있던 승려들에게 자신의 털 한 줌을 뽑아 잘게 찢어 그 조각들을 호신부로 나눠준다. 그들이 어디에 있던 털 조각을 無名指 손톱에 넣고 ‘제천대성’을 부르기만 하면 손오공이 나타나 위험을 막아주고, 위험이 지나간 뒤 ‘고요함[寂]’이라고 말하면 털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었다.<sup>6)</sup> 500개의 털 조각들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갖지만 그것은 한 줌의 털에서 나온 것이고, 그 털은 다시 손오공의 한 몸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500개의

3) 爾時舍利弗踊躍歡喜，即起合掌，瞻仰尊顏而白佛言，今從世尊聞此法音，心懷勇躍，得未曾有。所以者何，我昔從佛聞如是法，見諸菩薩授記作佛，而我等不豫斯事，甚自感傷，失於如來無量知見。世尊，我常獨處山林樹下，若坐若行，每作是念，我等同入法性，云何如來以小乘法而見濟度。是我等咎，非世尊也。所以者何，若我等待說所因成就阿耨多羅三藐三菩提者，必以大乘而得度脫。然我等不解方便隨宜所說，初聞佛法，遇便信受思惟取證。世尊，我從昔來，終日竟夜每自剋責，而今從佛聞所未聞未曾有法，斷諸疑悔，身意泰然，快得安隱。今日乃知真是佛子，從佛口生，從法化生，得佛法分。鳩摩羅什，『妙法蓮華經卷第二』，「譬喻品第三」(大正藏090, p.010b)

4) 鳩摩羅什，『妙法蓮華經卷第二』，「譬喻品第三」(大正藏09, pp.012b-012c)

5) 대승교리에서는 부처님이 처음, 중간, 나중의 순서에 따라 성문, 연각, 보살승의 법을 설했다고 보고 있다. 소승은 고집멸도의 사제법을 닦아 구경열반에 이르는 것을 수행의 목표로 삼고 있다. 연각은 12인연법을 닦아 스스로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보살승은 6바라밀을 수행내용으로 하여 아뇩다라삼박삼보리를 획득하여 일체중지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런데 이 3승의 길은 대중들의 조건에 따라 시설된 방편설법으로서 一佛乘의 도리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 설해진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삼승이 일불승에 돌아가야 한다는 會三歸一의 이치를 설하고 있다.

6) 捻在無名指甲裏，捻著拳頭，只情走路。無人敢拿你便罷。若有人拿你，攢緊了拳頭，叫一聲齊天大聖，我就來護你。……行者又吩咐，叫聲寂字，還你收了。真個是叫聲寂，依然還是毫毛在那指甲縫裏。『西遊記』(第44回)

털 조각들과 한 줌의 털과 손오공의 한 몸은 모두 둘 아닌 관계에 있다. 그것은 모든 모양가진 만물과 모양을 떠난 법신이 둘 아닌 관계에 있음을 밝히기 위한 장치이다. 그것은 흩어지면 만물이 되고, 돌아오면 하나가 되는 관계에 있다. 그것이 無名指에 감춰져 있다는 것은 모양과 이름으로 규정되지 않아[無名] 특별한 무엇이 따로 없으며, 또한 동시에 어느 곳에 한정되는 일 없이 모든 곳에 있다는 뜻이다. 또한 그것은 500곳에 동시에 나타나는 ‘제천대성’과 궁극의 없음으로 돌아가는 ‘고요[寂]’의 관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손오공은 500 승려들에게 털을 나누어주고 흩어지도록[散] 한 뒤, 이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되돌아와 털을 반환하라[還]고 지시한다.<sup>7)</sup> 이들이 별도의 뛰어난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소승, 연각 차원의 집착에 빠져 있으므로 먼저 그것을 내려놓고 흩어지도록 한 것이다. 원래 이들은 방편으로 제시된 수레를 궁극의 무엇이라고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자아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한 번뇌를 끊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자부심은 어떤 특별한 모양과 이름을 갖는 법이 따로 있고 자신이 그것을 성취하여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집착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손오공의 흩어지라는 지시는 별도의 하나가 있다는 집착을 끊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모양의 법이 있다는 집착을 끊기 위해 털을 씹어 조각을 냈고, 특별한 이름을 갖는 법이 있다는 집착을 끊기 위해 무명지 손톱에 털 조각을 넣도록 했다.

그것은 결국 만 가지 현상에 법신이 깃들인 실상의 이치를 확인해보라는 숙제에 해당한다. 이 숙제가 충분히 익었을 때 만법과 법신이 둘 아닌 色空禪이 성취되어 흩어짐[空卽是色]과 돌아옴[色卽是空]의 중도실천이 철저해지는 것이다. 색공선은 『서유기』에서 개발한 용어인데 제71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로 그 이치를 밝히고 있다.

모양가진 만물[色]은 원래 실체가 없는 것[空], 실체가 없기는 하지만[空] 모양가진 만물[色]이 곧 그것. 색공선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영단묘약을 제련한다고 애쓸 일 무엇이라.<sup>8)</sup>

車遲國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에피소드 들은 모두 이러한 색공선의 청취[聞]와 사유[思]와 닦음[修]과 완성[證]에 대한 비유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하여 에피소드가 시작할 때 흩어졌던 500 승려들은 삼승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의 一佛乘으로 귀일되는 마지막에 모두 돌아오게 된다.

### 3. 對法과 중도의 실천 — 三清觀 뒤집기

우리의 존재가 四大五蘊의 다양한 요소와 작용으로 이루어진 인연의 집합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 집착을 내려놓는 일을 아집의 단멸이라 부른다. 그런데 아집을 끊었다는 바로 그

7) 眾和尚卻才歡喜逃生,一齊而散.行者道,不可十分遠遁,聽我城中消息,但有招僧榜出,就進城還我毫毛也. 五百個和尚東的東,西的西,走的走,立的立,四散不題. 『西遊記』(第44回)

8) 色即空兮自古, 空言是色如然. 人能悟徹色空禪, 何用丹砂炮煉. 『西遊記』(第71回)

일이 또 다른 집착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아녹다라삼막삼보리라는 궁극의 진리가 있고, 나라는 주체가 그것을 닦아, 그 진리를 성취한 주체가 되었다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법집으로서 아집에 비해 고차원적이고 미세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장애[所知障]라는 점은 다름이 없다. 그래서 대승경전은 스스로 아집의 단멸을 성취한 주체라고 자부하는 아라한의 길[道]과 성취[果]에 머물지 않고 도저한 공관을 실천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금강경』에서 그것은 한결같은 부정[卽非]과 새로운 긍정[是名]의 불이구조를 통해 거듭 변주되어 설해진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32가지 특별한 모양으로 여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특별한 모양으로 여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래가 설한 32가지 특별한 모양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32가지 특별한 모양이라 부릅니다.<sup>9)</sup>

이렇게 모든 특별한 모양의 실체성을 부정하되[色卽是空], 다시 그렇게 부정된 만 가지 모양이 진리가 드러난 현장임을 긍정하는[空卽是色] 일을 중도의 실천이라 한다. 그러면 이 부정과 긍정의 동시실천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육조혜능은 이와 관련하여 36가지 對法을 제시한다. 육조혜능은 열반을 앞두고 법해, 지성 등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들 10명의 제자들은 가까이 오라.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내가 죽은 뒤 각각 한 곳의 스승이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설법에 대해 가르쳐 근본 종취를 잃지 않게 하리라. 먼저 3가지 법문을 말하고, 그런 뒤 움직여 활용함에 필요한 36가지 상대되는 법을 말하라. 그리하여 나가고 들어감에 상대적 두 측면을 떠나게 하라. 모든 법을 이야기할 때에는 자성과 모양을 떠나지 말라. 만약 누군가 법을 묻는다면 모든 말을 쌍으로 하여 모두 대법을 취하도록 하라. 가고 옴이 서로 인연이 되게 하여 결국엔 두 법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다시는 갈 곳이 없게 하라.<sup>10)</sup>

실체가 있다는 집착을 내려놓도록 하는 전략으로 그것의 상대성을 밝히는 일만한 것이 없다. 상대되는 두 측면을 제시한 뒤 그것이 상호의존적 관념의 유희임을 밝혀 어느 한 측면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육조혜능은 여기에서 무생물의 차원, 작용의 차원, 언어와 현상의 차원에서 36가지 對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숫자에는 별 의미가 없다. 만사만물이 모두 상대되는 두 개념에 의해 분별되고 있다는 점, 그것이 분별적 관념의 유희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언어전략의 일환임을 알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승경전의 문학적 변용이라 할 『서유기』는 이러한 대법적 역설을 끌어내는데 특히 능하다. 예컨대 500 승려들을 풀어준 손오공은 智淵寺에 머물면서 三清觀을 뒤집는다. 지연사는

9)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三十二相見如來不? 不也, 世尊, 不可以三十二相得見如來. 何以故, 如來說三十二相, 卽是非相, 是名三十二相. 鳩摩羅什, 『金剛般若波羅蜜經』(大正藏08), p.0750.

10) 汝等拾弟子近前. 汝等 不同餘人. 吾滅度後. 汝等各為一方師. 吾教汝等說法 不失本宗. 舉三科法門 動用三十六對. 出沒卽離兩邊. 說一切法 莫離於性相. 若有人問法. 出語盡雙. 皆取對法 來去相因. 究竟二法盡除. 更無去處. 『六祖壇經』.

지혜[智]의 연못[淵]이라는 뜻이지만 그 표방하는 바와 달리 공염불만 하면서 세상에 감로를 내리지 못하는 곳이다. 안으로는 공에 집착하고 밖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유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연사의 문은 굳게 닫혀있다. 여기에서 지혜의 연못과 공염불이 대법을 이루며 무엇이 진정한 지혜의 연못인지를 상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감로를 내리는 기우제에서 승리한 도사들은 옳은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三清觀의 대법적 뒤집기가 일어난다. 삼청관의 삼청은 玉清, 上清, 太清의 청정한 하늘 세계를 가리키며, 그곳을 주재하는 元始天尊, 靈寶天尊, 道德天尊을 가리킨다.

삼청이란 3곳의 청정한 국토로서 어떠한 더러움도 없는 곳이다. 각 천궁의 군주는 수천수만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기운이 묶이면 구름으로 뭉쳐지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몸으로 나타나니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sup>11)</sup>

탁한 것은 가라앉아 땅이 되고 맑은 것[淸]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었다는 중국적 우주관에서 볼 때, 가장 맑고 가장 신성한 것이 위로 올라가 아래 세상을 관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가장 맑은 기운을 본질, 작용, 존재의 측면에서 나눈 것이 삼청의 세계이자 그 삼청의 주인인 삼존이 되는 것이다. 삼청관은 바로 이 삼청을 구현한 삼존을 모신 곳이다. 그런데 손오공은 저팔계를 시켜 삼청전의 삼존상을 측간에 빠뜨리고 각자 삼청의 신이 되어 공양물을 훔쳐 먹는다. 이 때 팔계는 신상들을 측간에 빠뜨릴 때 튕 오물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공양물을 먹는다. 그리고는 그들을 진짜 신으로 착각한 虎力, 鹿力, 羊力 도사가 장생불사의 약을 구하자 자신들의 오줌을 내어준다. 이 세 가지의 만행, 그러니까 삼청의 신상을 측간에 빠뜨린 일, 속되고 거친 손오공 3형제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 공양을 받는 일, 도사들에게 오줌을 장생불사약으로 먹이는 일은 육조혜능이 제시한 對法の 실천에 해당한다.

우선 손오공은 팔계를 시켜 삼청의 신상들을 측간에 빠뜨리는데 이 일 자체가 대법의 실천이다. 가장 청정한 삼청의 신들이 가장 더러운 측간에 있게 됨으로써 청정함과 더러움이 대법을 이루어 그 독립적 실체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다. 對法の 실천은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의 집착을 내려놓도록 하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신상을 측간에 빠뜨리는 일 역시 對法の 실천이기는 마찬가지다. 왜 그런가? 똥과 오줌에 신이 있다면 모든 곳에 신이 없는 곳이 없게 된다. 가장 청정한 삼청의 신과 가장 더러운 오물이 영원히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돌고 도는 관계에 있게 된다. 그래서 손오공은 측간을 ‘오곡이 윤회하는 곳[五穀輪回之所]’이라 불렀던 것이다. 이를 통해 청정한 차원과 신성한 존재가 따로 있다는 편향적 집착을 교정하여 중도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이 일을 저팔계에게 시킨 것은 저팔계야말로 아름다운 여인과 맛있는 음식을 욕망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sup>12)</sup>였기 때문이다. 스스로 특별한 것이 따로 있다는 분별과 여기

11) 三清者, 言三清淨土無諸染, 其中宮主, 萬緒千端, 結氣凝雲, 因機化現, 不可窮也. 『雲笈七籤』(卷六), 「三洞并序」.

12) 저팔계는 천상의 장군으로 있을 때 옥황상제의 연회에서 상아를 희롱하다가 하계로 추방되었고, 추방된 뒤에는 卯二姐의 데릴사위를 했으며, 삼장 일행을 만날 때에는 翠蘭의 데릴사위로 살고 있었다. 구법단에 참여한 뒤에도 수시로 음식과 여인을 탐하여 서천길에 방해가 되는데, 그는 食色을 추

에서 비롯되는 탐진치의 번뇌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應供]<sup>13)</sup>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은 존재에게 한정되는 호칭으로서 팔계는 신상을 측간에 버리는 행위를 통해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신전의 공양물을 먹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 더구나 팔계의 옷은 측간에서 된 오물에 적셔지는데 그렇게 오염된 팔계가 신의 자리에서 공양을 받게 되었으므로 더러운 오물이 깨끗한 신[三清]이 되고, 깨끗한 신이 더러운 오물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은 장자와 東郭子가 나눈 다음과 같은 대화와 무관하지 않다.

동곽자가 장자에게 물었다. ‘도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자가 말했다. ‘어디에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동곽자가 말했다. ‘구체적으로 말해주시지요.’ 장자가 말하였다. ‘땅강아지나 개미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찮은 것에 있다는 것입니까?’ ‘강아지풀이나 가라지에도 있습니다.’ ‘어째서 더 하찮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기와나 벽돌에도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군요.’ ‘오줌과 똥에도 있습니다(在屎溺).’ 동곽자가 더 말하지 못하였다.<sup>14)</sup>

장자는 도를 신성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동곽자를 상대하고 있다. 그는 천재적 언어감각을 발휘하여 더럽고 하찮은 것들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그 관념적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그 하찮음은 점층적으로 강화되어 결국 오줌과 똥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를 통해 동곽자의 분별과 집착은 자리 잡을 곳이 없게 된다. 동곽자가 더 말하지 못한 것은 장자의 對法적 역설이 그의 분별을 철저히 허물었기 때문이다.

같은 차원에서 장생불사약을 구하는 3명의 도사들에게 오줌을 내어준 일 역시 對法의 실천에 해당한다. 도가에서 장생불사는 도의 완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자 궁극의 도달처이다. 그러한 궁극에 도달하고자 하는 도사들에게 오줌을 내어줌으로써 궁극의 경계에 대한 집착을 허물어버린다. 그와 동시에 오줌이야말로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의 현현임을 웅변한다. 모두 對法의 언어전략으로서 중도로 이끄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 4. 무너짐과 소생 — 기우제

손오공 일행은 통관문서를 받으러 왕궁에 들어갔다가 도사들과 마주치게 된다. 도사들은

구하는 방식으로 도를 추구하는 잘못된 수행의 전형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강경구, 『西遊記, 豬八戒형상의 불교적 독해』, 『中國學』, 제54집, 2016.03.31, pp.121-125 참조.

13) 자아를 이기고 법과 하나된 이에게 한정되는 명칭이 10가지가 있다. 허망하지 않으므로 如來, 복전 이므로 應供, 법계를 일체지로 안다는 뜻으로 正遍知, 3가지 지혜를 갖추어 그것을 잘 활용하므로 明行足, 가고 오는 윤회가 없으므로 善逝, 국토와 중생을 잘 안다는 점에서 世間解無上士, 중생의 번뇌를 잘 조복시킴으로 調御丈夫,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에게 안목을 키워주므로 天人師, 중도를 성취 하였으므로 佛, 한 세상에 부처는 유일무이하므로 世尊이라 한다. 10가지 호칭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다. 孫念劬, 『金剛經彙纂原序』(正續藏25), p.0759c.

14) 所謂道惡乎在. 莊子曰無所不在, 東郭子曰期而後可. 莊子曰在螻蟻, 曰何其下邪. 曰在稊稗. 曰何其愈下, 曰在瓦甓. 曰何其愈甚邪, 曰在屎溺, 東郭子不應. 『莊子·知北遊』



손오공 일행에게 복수하기 위해 다양한 시합을 제안한다. 그 첫 번째가 기우제 시합이었다. 도사가 바람의 신, 구름의 신, 천둥번개의 신, 비의 신을 호명하자 신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이에 손오공이 하늘로 올라가 신들을 저지하고 자신의 명령을 듣게 한다. 그리고는 여의봉으로 신호를 보내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고,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마지막으로 비가 그치기까지의 기우제를 완수한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이 각 단계는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에 눈뜨는 과정과 일치한다.

우선 비가 내리는 첫 단계에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바람이 일어난다. 손오공이 바람 신에게 여의봉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버드나무 가지를 꺾고, 숲과 나무를 쓰러뜨리고, 구중궁궐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궁궐대문의 서까래와 기둥을 뒤흔든다. 하늘에는 붉은 해가 빛을 잃고, 땅에는 황사가 날개를 날고 솟아오른다. 연무청의 장수들은 놀라고, 회문각의 문관들은 두려워한다. 궁녀들의 분바르고 화장한 얼굴 검은 줄이 지고, 여섯 후원 비빈들의 아름다운 머리 온통 헝클어진다. 고관들의 금관에서 갓끈이 끊어지고, 재상의 오사모는 양 날개가 마구 휘날린다.<sup>15)</sup>

바람은 모양으로 드러난 것들을 꺾고, 허물고, 흔들고, 헝클고, 무너뜨려버린다. 이를 통해 모양으로 규정되는 어떤 것에도 별도의 실체가 있지 않음을 웅변하고 있다. 각각의 존재가 자부심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 버드나무는 살랑거리는 가지가 있어 버드나무답고, 구중궁궐은 담장이 깊어 진정한 궁궐이며, 궁전의 대문은 흔들리지 않아 위엄이 선다. 장군은 홀로 대군을 앞에 두고도 놀라지 않아 진정한 장군이며, 위력에 두려워하지 않아 진정한 문관이다. 궁녀들과 비빈들은 화장과 머리자태에 그 아름다운 존재의 뿌리를 두고 있다. 고관들은 갓끈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유지하며, 대신들은 오사모의 미동 없는 양 날개<sup>16)</sup>로 자신의 엄숙한 지위를 확인한다.

바람은 이 각각의 존재가 자기존재성을 구축하는 근거를 허물어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오공이 구하는 비는 우리의 존재근거를 허무는 바람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허물어져야 비가 내린다는 역설, 불교의 法雨가 그렇다. 불교의 지혜는 자아의 필연적 무너짐에 대한 자각과 체험에서 일어난다. 원래 그 무너짐에 대한 자각은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석가모니는 四門遊觀으로 그것이 자신에게도 닥칠 것을 예견했지만 대부분의 범상한 중생들은 스스로 직접 체험한 뒤에야 그것을 자각한다. 건강을 잃거나 자부하던 것이 무너지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무너짐이 법의 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싫어할 이

15) 折柳傷花，摧林倒樹。九重殿損壁崩牆，五鳳樓搖梁撼柱。天邊紅日無光，地下黃砂有翹。演武廳前武將驚，會文閣內文官懼。三宮粉黛亂青絲，六院嬪妃蓬寶髻。侯伯金冠落繡纓，宰相烏紗飄展翅。『西遊記』(第45回)

16) 烏紗帽은 東晉시기부터 관리의 정식복장으로 채택되었는데 그 양식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오사모에 양날개가 생긴 것은 송태조 趙匡胤 때부터였다고 하는데 조정에서 정사를 논의할 때 상호간에 비공식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개발된 장치였다는 설이 있다. 서로 귓속말을 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양날개의 움직임이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대신들은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西遊記』에서는 오사모의 양 날개가 마구 떠나는 말로 대신들의 위엄이 무너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유가 없다. 그래서 『寶王三昧念佛直指』 등의 경전에서는 ‘병 없기를 바라지 말고, 세상사에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말고, 마음공부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고, 도의 실천에 마장 없기를 바라지 말고, 일을 진행에 쉽게 이뤄지기를 바라지 말고, 벼를 사궤에 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남이 잘 따르기를 바라지 말고, 덕을 베풀었다고 보답을 바라지 말고, 이익을 보면서 자기 몫을 차지하기를 구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그것을 풀기를 구하지 말라’<sup>17)</sup>는 ‘열 가지 구하지 않기의 실천[十不求行]’을 닦음의 길로 제시한다.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고, 고난이 없으면 교만방자해지고, 장애가 없으면 서원이 견고하지 못하게 되고, 쉽게 이뤄지면 가볍고 오만해지고, 이익이 되면 도의를 상실하고, 남이 따르면 스스로 뽑내는 마음이 커지고, 보답을 바라다보면 의도하는 바가 있게 되고, 이익을 차지하게 되면 어리석은 마음이 작동하게 되고, 억울함을 풀다보면 나와 남의 분별이 있게 된다.’<sup>18)</sup> 그러므로 도의 완성을 향해 구법의 여행을 하고 있는 손오공이 불러오는 비는 삶의 고통한 본질을 직접 맛보고 깊이 체감하도록 하는 바람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비가 내리는 두 번째 단계는 캄캄한 구름이다. 바람으로 무너진 터전에 온 세상을 덮는 어두운 구름이 몰려와 세상은 캄캄한 절망으로 가득 찬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세상이 까마득히 캄캄해지고, 온 거리가 점차 어두워진다. 구름은 바람으로 인해 바다를 떠나와 비를 따라 곤륜산에 나타난다. 순식간에 천지를 가득 덮고, 잠깐 사이에 세상의 흔적을 가려 버린다. 마치 천지가 나뉘기 전의 혼돈과 같아, 궁궐의 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 때 어두운 안개에 세상이 흐릿하고, 짙은 구름에 하늘의 해가 빛을 잃는다.<sup>19)</sup>

구름과 안개로 인해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는 상황의 묘사로서 그것을 하늘과 땅, 나와 대상을 나누기 전의 혼돈과 같다고 묘사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삶이 苦海인 이유는 선과 악, 하늘과 땅, 나와 너를 나누는 이원분별이 있기 때문이다. 자아는 더 나은 것을 갈망하며 지금 이것을 버리고 실재하지 않는 어딘가를 몽상하며 고단하게 나아가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택의 삶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둘로 분별하기 전의 자리에 대해 눈뜨기를 제안한다. 우주적으로는 천지가 나뉘기 전[天地未分之前], 개인적으로는 부모가 나를 낳기 전[父母未生前]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것은 모든 것에 별도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하는 色即是空의 도리에 눈뜨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완전한 무너짐, 완전한 절망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분별을 멈추어 둘 아닌 자리로 돌아가는 일을 바람[무너짐] → 운무[완전한 무너짐]의 특징을 빌어 비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천둥과 번개가 일어난다. 손오공이 여의봉으로 신호를 보내자 천둥과 번개의 신

17) 一念身不求無病。二處世不求無難。三究心不求無障。四立行不求無魔。五謀事不求易成。六交情不求益我。七於人不求順適。八施德不求望報。九見利不求露分。十被抑不求申明。妙叶禪師, 『寶王三昧念佛直指』(大正藏47), p.0373c.

18) 身無病則貪欲乃生。世無難則驕奢必起。心無障則所學躓等。行無魔則誓願不堅。事易成則志成輕慢。情益我則虧失道義。人順適則內心自矜。德望報則意有所圖。利露分則癡心必動。抑申明則人我未忘。妙叶禪師, 『寶王三昧念佛直指』(大正藏47), p.0373c.

19) 茫茫三市暗, 冉冉六街昏。因風離海上, 隨雨出崑崙。頃刻漫天地, 須臾蔽世塵。宛然如混沌, 不見鳳樓門。此時昏霧朦朧, 濃雲靄靄。『西遊記』(第45回)

이 움직인다. 천둥번개가 치자 이전과는 다른 일이 일어난다. 『서유기』에서는 천둥번개가 치자 ‘만물이 싹을 틔우고 새로운 생기를 찾으며, 무수한 곤충들이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온다’<sup>20)</sup>고 묘사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겨울 동안 잠들어있는 못 생명들이 다시 깨어나 소생을 시작하는 驚蟄에 대한 묘사와 완전히 일치한다. 또한 불교적으로 볼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임을 선언하는 진정한 긍정의 시작에 해당한다. 앞의 단계에서 일어난 바람과 구름은 모양과 이름에 대한 시비분별, 호오선택을 내려놓는 일이었다. 그것은 반야적 부정의 길로서 ‘공역시 공[空空]’임을 확인하는 머물지 않는 공의 실천을 내용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는 점에서 불교적 변증법은 우리를 진정한 긍정으로 이끈다. 이것이 천둥과 번개가 상징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손오공의 네 번째 신호가 떨어지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하늘의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듯 거리를 흰 물결로 채워 상전을 벽해로 만들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비다. 장강을 들어 올려 아래로 쏟아내는 것 같은 비다.<sup>21)</sup> 또한 충분히 내린 비는 국왕이 요청하자마자 바로 그친다. 충분하다는 것은 모든 풀과 나무[三草二木]가 각자 필요한 만큼 비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다. 국왕은 이것을 ‘더 많이 내리면 벼의 싹이 물에 잠겨 상해버리면 오히려 좋지 않다’<sup>22)</sup>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 비의 충분함은 작은 풀, 중간 풀, 큰 풀, 그리고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모두 각자의 몫만큼 혜택을 누리는 정도의 충분함이다. 비가 너무 많으면 작은 풀, 중간 풀이 물에 잠겨 도리어 죽어버릴 수도 있다. 아무리 가물었다 해도 무조건 많은 비가 좋은 것은 아니다. 같은 이치로 여래는 각 중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습성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도움이 되는 법의 비를 내린다. 『법화경』에서는 隨宜說法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삼천대천세계의 산과 물, 계곡과 땅에서 자라는 꽃나무와 숲과 모든 약초들에 다양한 종류가 있고 각자의 색이 있어 서로 다릅니다. 큰 구름이 가득 깔려 삼천대천세계를 남김없이 덮고는 일시에 평등하게 비를 내려 그 혜택을 두루 적시게 됩니다.<sup>23)</sup>

여기에서 모든 풀과 나무에 각각의 몫만큼 혜택을 주는 다양한 비는 결국 한 맛, 한 모양[一味一相]의 비에서 온다. 그런데 『서유기』의 세 도사는 각자의 술법에 집착하여 그것만이 비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집착한다. 이에 비해 손오공의 도술은 법의 비가 평등하게 만물을 적신다는 점, 무조건 큰 비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여리거나, 억세거나,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모든 풀과 나무들이 그 혜택을 입을 뿐 물에 빠져 상하는 일이 없도록 설해진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소승, 연각, 보살승이 한 맛의 불법에서 나온 것임을 모르고 각기 다른 것으로 생각하여 각자 자기의 것을 최고로 여기는 집착을 타파하고

20) 萬萌萬物精神改, 多少昆蟲蟄已開. 『西遊記』(第45回)

21) 樓頭聲滴滴, 窗外響瀟瀟. 天上銀河瀉, 街前白浪滔. ……真個桑田變滄海, 霎時陸岸滾波濤. 『西遊記』(第45回)

22) 十分再多, 又淹壞了禾苗, 反為不美. 『西遊記』(第45回)

23) 譬如三千大千世界, 山川谿谷土地所生卉木叢林及諸藥草, 種類若干, 名色各異. 密雲彌布, 遍覆三千大千世界, 一時等澍, 其澤普洽. 鳩摩羅什, 『妙法蓮華經』(大正藏09), p.0019a.

자 하고 있는 것이다.

## 5. 주체와 대상에 대한 집착의 교정 — 雲梯顯聖과 隔板猜枚

두 번째 시험은 좌선시험으로서 그것은 의자 50개를 쌓아올린 좌선대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 움직이지 않고 누가 오래 앉았는가를 겨루는 시험이었다. 손오공이 술법으로 삼장을 올려 주어 호력대선과 시험을 하게 되는데 둘의 실력이 비슷하여 승부가 나지 않았다. 노력대선이 자신의 털로 빈대를 만들어 삼장의 머리로 날려 보낸다. 삼장이 가렵고 따가워 옷깃으로 가려운 곳을 문대느라 움찔대자 손오공이 팔계의 신호에 따라 김새를 알아채고 날아가 빈대를 눌러 죽인다. 그리고는 지네로 변해 좌선중인 호력대선의 코로 들어가 코벽을 깨물어버린다. 아픔을 이기지 못한 호력대선이 높은 좌선대에서 떨어지고 승패가 결정된다.

이것은 좌선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비유이다. 호력대선이 생각하는 좌선은 의자 50개를 높이 쌓는 일이고, 움직이지 않는 일이고, 오래 앉는 일이다. 그것은 구름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성스러움을 뽐내는 일[雲梯顯聖]이다. 우선 그는 좌선에 대해 의자를 50개씩 쌓아 그 위에 올라앉는 일로 생각한다. 의자 50개를 쌓은 좌선대는 저차원을 싫어하고 고차원을 좋아하며 스스로 특별해지기를 추구하는 외도선<sup>24)</sup>의 한 특징이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오래 버티는 일을 좌선으로 여기는 것 역시 외도선의 특징이다. 옛날 尚闍梨라는 외도선인은 좌선을 할 때 새들이 그 머리에 둥지를 틀자 새들을 위하여 새끼가 둥지를 떠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선정을 계속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 ‘머리 둥지[頂上巢]<sup>25)</sup>의 이야기는 외도의 경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좌선의 한 모델로 받아들이는 수행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삼장이 실천해온 좌선은 어떠한가? 삼장은 ‘어릴 때 높은 선승의 가르침을 받아 생명의 근본에 자성과 정신을 집중하고 사생의 관문 속에서 2~3년씩 앉아 있곤 했다’<sup>26)</sup>고 자신의 좌선이력을 밝힌다.空的 이치를 깨닫는 일에 집중하며 만법이 시작되는 한 점을 놓치지 않는 좌선을 지향하고 있다.

이 두 좌선은 모두 선정의 힘을 기르거나 관찰의 힘을 기르는 일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로 상통한다. 그것은 수행의 결과를 성취한 주체라는 자부심을 강화시키거나, 별도의 진리가 따로 있다는 대상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하곤 한다. 좌선을 통해 아집과 법집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손오공이 실천하는 좌선은 다르다. 우선 좌선대에 올라가는 방식을 보자. 호력대선은 자기육신을 구름에 실어 높은 좌선대에 올려놓는다. 낮은 것을 싫어하고 높은 곳을 추구하는 좌선이며, 궁극적으로 좌선하는 주체를 높이는 좌선, 다시 말해 스스로 자아를 강화

24) 一作異計, 忻上厭下而修者, 是外道禪. 延壽, 『宗鏡錄』(大正藏48), p.0586b.

25) 如一切外道禪, 定中得自在. 又如尚闍梨仙人, 坐禪時無出入息, 鳥於螺髻中生子, 不動不搖, 乃至鳥子飛去. 龍樹, 『大智度論』(大正藏48), p.0089b.

26) 我幼年遇上方禪僧講道, 那性命根本上, 定性存神, 在死生關裏, 也坐二三個年頭. 『西遊記』(第46回)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좌선인 것이다. 이에 비해 손오공은 털을 뽑아 가짜형상을 남겨두고 삼장을 좌선대에 올려놓고 내려와 다시 모기눈썹에 사는 蠅蠅蟲<sup>27)</sup>으로 변해 팔계에 귓가에 붙어 팔계에게 삼장을 잘 관찰하고 있으라고 지시한다. 그러니까 삼장은 생명의 근원을 관찰하고, 그 삼장을 팔계가 관찰하고, 그 팔계를 손오공이 관찰하는 이중삼중의 관찰이 진행되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누가 좌선을 하는 것인가? 삼장인가? 그는 움직임 없이 앉아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팔계가 관찰하고 있다. 그렇다면 팔계가 참선하는가? 삼장을 관찰하는 팔계를 손오공이 관찰하고 있으므로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손오공이 참선하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아니다. 사실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찰의 관계는 현장삼장이 창종한 法相宗의 유식학에서 설명하는 인식층위, 다시 말해 인식의 대상인 相分, 인식의 주체인 見分, 그 인식작용을 돌이켜 비취보는 自證分, 자증분의 인식작용을 돌이켜 비취보는 證自證分에 대한 형상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상분=생명의 근본, 견분=삼장, 자증분=팔계, 증자증분=손오공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우리는 인식되는 대상과 작용에 동화된다. 이러한 동화는 번뇌의 불길을 더욱 맹렬하게 키우게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동화의 방향을 되돌려 돌이켜보는 길[反照]을 제시한다. 이것을 유식에서는 이렇게 겹겹의 돌이켜 비추어보기를 통해 대상과 자아에 동화되는 일 없이 실상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삼장에게 빈대가 붙어 가려움과 따가움이라는 관찰대상이 일어났을 때 삼장은 그것에 동화되어 휘둘릴 상황이 된다. 이것을 팔계가 알아차리고[자증분], 다시 팔계의 인지작용을 손오공이 알아차린다[증자증분]. 손오공이 삼장에게 붙은 빈대를 죽였다는 것은 이 돌이켜보기를 통해 대상이나 자아와의 동화가 멈추게 되었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손오공이 지네로 변해 호력대선의 콧속으로 들어가 코 벽을 깨무는 일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특별한 무엇을 관찰하고 그것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을 밝게 인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상과 작용에 동화됨 없이 관찰의 층위를 심화·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좌선이라면 항상 우리는 지금 당장의 이 일과 맞대면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지금 당장의 일 중 제1순위는 들숨과 날숨이다. 그래서 지네가 된 손오공은 숨이 들고 나는 지점인 코의 벽을 깨문 것이다.

참선시험에 이어 隔板猜枚의 투시력 시험이 일어난다. 이 시험은 대상[法]에 대한 진정한 알아차림이란 무엇인가를 밝히는 일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왕후가 가장 귀중한 보물을 감춰 보라는 국왕의 말에 따라 께짝 속에 山河社稷 두루마기와 乾坤地理 치마를 넣는다. 이것을 녹력대선이 맞춘다. 손오공은 께짝 속에 들어가 두루마기와 치마를 낚은 鐘으로 바뀌버린다. 삼장이 손오공의 말대로 낚은 종이 들었다고 하여 첫 번째 투시력 시험에서 승리한다. 불교적 관점에 의하면 법계의 모든 사물은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공하다. 그것들은 임시적 요소들의 조합이며, 끝까지 쪼개보아도 궁극의 무엇이 있지 않고[分析空], 시간적으로 필연적 소멸을 예약하고 있다[畢竟空]. 뿐인가? 지금 당장 그것은 분별적 관념에 의한 이름붙이기의 결과일 뿐 별도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當體卽空].<sup>28)</sup> 어떻게 보아도 공이다. 손오공은 왕비

27) 蠅蠅蟲은 매미를 뜻하지만 『서유기』에서는 모기눈썹에 사는 작은 벌레를 가리킨다. 손오공은 미세한 관찰이 필요할 때마다 蠅蠅蟲으로 변해 좁은 틈을 통과하거나 팔계를 감시한다.

28) 天台智顗는 공을 析空, 體空, 但空, 不但空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석공은 분석공, 체공은 당체

가 자기의 행복을 확인하는 징표로 내세운 산하사직 두루마기와 건곤지리 치마를 낚은 종으로 바뀌버림으로써 어떤 것도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 비유는 종이 낚았다는 점, 鐘이 終과 쌍성첩운의 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착안한 것이다. 도사들이 국가와 국왕의 천추만세를 외치며 영원한 복락을 기원할 때 손오공은 그것의 필연적 소멸을 드러내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의 비를 내리는 시험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다.

이에 국왕은 왕후가 낚은 종을 넣어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언짢아하면서 어화원에서 직접 판 사발만한 복숭아를 넣는다. 양력대선이 복숭아라고 맞추지만 그 사이 손오공이 蟪蛄蟲으로 변해 껌작의 틈으로 들어가 복숭아를 먹어버리고 씨만 남겨둔다. 그리고 이번에도 손오공의 말에 따라 삼장이 승리한다. 여기에서 사발만한 복숭아는 풍성한 수확을 상징하는 동시에 장생불사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동방삭이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장생불사의 몸을 얻었다는 전설이 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으로서 마지막 유일한 희망은 육신이 영생하여 부귀영화를 영원히 누리는 일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복숭아는 씨에서 꽃을 거쳐 마지막에 거두게 되는 열매이다. 그러니까 왕은 과거에 심은 씨앗으로 현재 사발만한 복숭아에 비유되는 국왕이라는 풍성한 과보를 누리고 있다. 인과의 원칙으로 보았을 때 그가 받은 국왕의 신분은 과거에 무수한 공덕의 씨앗을 뿌린 결과이다. 그리하여 왕은 사발만한 복숭아로 상징되는 풍요한 삶을 과보로 받았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지은 것이니 내가 향유할 것인가? 불교에서는 자신이 받은 좋은 과보를 쓰느라 인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보다 큰 과보를 위한 인연으로 쓰라고 권유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이전 삶에 뿌린 씨앗에서 생긴 열매이지만, 이것은 다시 다음 삶의 씨앗이 되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 받은 과보가 다시 내세의 원인이 된다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험에는 현세에 받은 과보를 향유하는데 삶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새로운 인연의 씨앗으로 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씨앗과 열매가 둘이 아님을 아는 일이다. 그것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의 눈뜸을 요구한다. 요컨대 수행이 곧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곧 수행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손오공은 복숭아를 씨앗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요괴들은 원인과 결과를 둘로 구분하여 결과를 향유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다.

두 번째 투시력 시험에서도 패배하자 호력대선이 직접 나서서 어린 道童을 넣는다. 물건은 바꿀 수 있어도 사람은 바꿀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었다. 손오공이 껌작 속으로 들어가 도사로 변신하여 동자의 머리를 깎아 동자승으로 만들어놓고 목탁을 주고 ‘아미타불’ 염불을 외도록 시킨 뒤 밖으로 나온다. 이번에도 손오공의 말을 따라 삼장이 승리를 하게 된다. 호력대선 등은 스스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 길을 추구하며, 자신들을 믿는 이들의 욕망을 성취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런데 손오공과의 시험결과 자신들은 전능하지 못하고, 국가에는 우순풍조를 선물하지 못하고, 국왕과 왕비에게는 영원한 부귀영화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믿는 도교의 진리만은 영원하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현세의 행복과 후세의 초월을 약속하는 『三官經』, 『北斗經』, 『消災經』이라는 경전

에 실린 특별한 진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궁극의 진리가 따로 있다는 집착은 자아를 최고로 세우는 집착에 비해 그 위험성이 결코 덜하지 않다. 손오공은 동자의 머리를 꺾고, 목탁을 들게 하고, 아미타불을 외게 함으로써 진리와 그것의 실천에 일정한 모습을 설정하는 오류를 꾸짖는다.

“스님! 하고 부르면 께짝 뚜껑을 열고 목탁을 치면서 불경을 외면서 나오면 되는 거야!” 동자가 말했다. “저는 『三官經』, 『北斗經』, 『消災經』을 외 줄만 알지 불교의 경전은 외지 못합니다.” 행자가 말하였다. “염불은 할 수 있겠지?” 동자가 말했다. “아미타불야야 누가 못 외겠습니까?” 행자가 말했다. “그러자, 그러자! 염불로 하자. 다시 너를 가르치는 일도 줄일 겠해서.”<sup>29)</sup>

모양은 인연에 따라 바뀌기를 거듭한다. 그런데 도교의 호력대선은 바뀌지 않는 본질이 따로 있다고 고집한다. 원천으로 돌아가는 수행을 통해 노인인 도사가 동자로 바뀌는 일[返老還童]이 있다고 생각하여 동자를 보물로 삼아 께짝에 넣는다. 그것은 형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지만 당사자는 그것을 모른다. 결국 특별한 모양에 기탁하여 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집착한 도사는 물건의 현상과 본질이 둘 아닌 이치에 어두워 시험에서 지고 만다.

이 투시력 시험을 통해 『서유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모든 것에는 고정적 실체가 따로 있지 않다. 거대한 우주가 먼지가 되기도 하고, 현세의 입장에서 보면 열매이지만 내세의 입장에서 보면 씨앗이 되기도 하며, 바뀌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사람들도 용모가 바뀌고, 복장이 바뀌고, 사회적 지위가 바뀌며, 마음이 바뀌며, 진리의 표현형식이 바뀐다. 영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소멸하여 모두 사라지는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정된 모양이 없이 인연에 따라 모양을 바뀌가며 나타나는 우주와 인간과 사물을 어떻게 보아야 진정한 투시력이 되는 것일까? 『서유기』는 먼저 우리가 접하는 세계와 사물에 본질적 실체가 있다는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 본 것이 바로 다음 순간 다른 것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난 세월에 부모였던 이가 현세에 나의 아들딸이 되었을 수도 있고, 지금의 원수가 내세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원리는 사유의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닻을 통해 직접 체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손오공은 밀폐된 상자를 드나든다. 이 일이야말로 수행을 통해 이것을 체험하고, 다시 그 체험을 통해 지혜로워지는 일을 상징하고 있다. 왜 그런가? 밀폐된 상자는 물체나 사람, 혹은 인연이 아직 모양을 일으키기 이전의 자리를 상징한다. 그것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이기도 하다. 진정한 관찰과 진정한 지혜, 그리고 진정한 투시력은 이렇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자리에서 그 기미를 알아차리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손오공의 들락거림은 하나조차 일어나기 전의 자리와 만물로 나뉘는 현실의 경계를 허물어 분별 없이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며, 안과 밖을 함께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것이야말로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함께 통찰하는 진정한 투시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9) 若叫和尚, 你就與我頂開櫃蓋, 敲著木魚, 念一卷佛經鑽出來, 方得成功也。童兒道, 我只會念三官經北斗經消災經, 不會念佛家經。行者道, 你可會念佛, 童兒道, 阿彌陀佛, 那個不會念。行者道, 也罷, 也罷, 就念佛, 省得我又教你。『西遊記』(第46回)

## 6. 죽어서 살아가기[大死卽活]

### — 목 자르기, 배 가르기, 끓는 기름에 목욕하기 시험

이 시험은 진리와 수행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는 일이었지만 도사들은 결코 쉽게 승복하지 않고 새로운 시험을 제안한다. 그것은 머리를 잘랐다 달기, 배를 잘랐다 붙이기, 끓는 기름에 목욕하기 시험이었다.

첫 번째 시험은 머리를 떼어냈다 붙이기 시험으로 손오공이 먼저 나서 목을 베게 한다. 그런데 땅에 떨어진 손오공의 머리를 호력대선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다. 그러자 손오공의 목에서 새로운 머리가 자라난다. 다음으로 호력대선의 목을 베는데, 손오공이 털로 누런 개를 만들어 땅에 떨어진 요괴의 머리를 물고 가서 냇물에 빠뜨려 버린다. 요괴는 죽어 버리고 한 마리 호랑이 시체가 남는다. 이 시험에서 손오공과 호력대선은 생명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손오공은 호력대선의 방해로 머리가 돌아오지 않자 새로 머리를 자라나게 한다. 새로 자라난 머리는 이전의 머리와 관계에 있어서 동질성과 차별성을 갖는다. 손오공에게 목숨은 영원히 한 모습만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끊어지면 끝인 것도 아니다. 영원[常]이라 할 수도 없고, 완전한 소멸[斷]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호력대선에게 목숨은 하나의 모습으로 유지되는 실체이다. 그래서 호력대선은 그 목에만 집착한다. 손오공이 변한 개의 영민한 관찰력으로 보면 그것은 냇물의 물방울과 같다. 냇물은 하나로 연결된 물의 줄기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물방울들로 떨어져 있다. 그것은 찰나 간에도 무수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생명의 상징이 되며, 또한 흘러가기만 할 뿐 한 순간도 머무는 일이 없는 생명 원리의 비유가 되기도 한다. 결국 호력대선은 영생[常住]의 집착에 빠져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생명의 실상에 눈뜨지 못한다. 결국 호력대선은 하나의 목에 집착하면서 새로운 목을 맞아들이지 못해 죽고 마는 것이다. 그의 죽음은 크게 죽었다[眞空] 완전하게 되 살아가기[妙有]를 내용으로 하는 一佛乘의 자리에서 삼승의 집착에게 내리는 꾸밈음이기도 하다.

호력대선이 죽자 노력대선이 손오공에게 배 가르기 시험을 제안한다. 손오공이 뱃속의 기생충을 쫓아내겠다며 배를 갈라 창자를 꺼냈다가 차곡차곡 다시 넣기에 성공한다. 노력대선도 배를 가르는데 손오공이 끓여준 매를 만들어 그 창자를 물고 허공[空]으로 날아가 버린다. 노력대선이 죽자 뱃속이 텅 빈[空] 흰 사슴의 시체가 나타난다. 손오공이 되살아난 것은 그가 스스로 내장의 벌레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 벌레를 잡아내야 서천의 부처님을 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몸이 오랫동안 불로 익힌 음식을 못 먹다가 며칠 전 서천 길에 우연히 재를 지내는 집에 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만두 몇 개를 더 먹었더니 요 며칠간 배가 아파오고 있습니다. 아마 벌레가 생긴 모양이라 마침 폐하의 칼을 빌려서 배를 갈라 오장육부를 꺼내 비위를 깨끗이 씻어내었으면 하는 참이었습니다. 그래야 서천으로 가 부처님을 뵈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sup>30)</sup>



불교적으로 볼 때 인간의 내면에는 다양한 기생충들이 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7말나 자의식의 심층집착인 我癡, 我見, 我慢, 我愛<sup>31)</sup>의 벌레들이다. 심층에 숨어 있으므로 배를 갈라야 이것을 꺼낼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자아의 실체가 있다는 미망에 사로잡혀 키운 자아의 벌레들이다. 그런데 자아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은 불법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이 벌레들이 있는 한 불도를 성취할 수 없고, 부처를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손오공은 자아의 벌레들을 잡아 없애고 부처님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반면 노력대선은 자아의 실체성을 집착한다. 손오공은 이 집착이 허망한 망상임을 지적하기 위해 매를 내보낸다. 높은 하늘을 나는 매는 관찰의 명수로서 지상의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자아에 집착하는 벌레들을 알아차려 노력대선의 창자를 물고 허공[空]으로 날아가서 빈 공간[空]만 남겨둔다. 자아라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실체가 없는 것임[空]을 밝게 보라는 뜻이다. 전체 이야기를 실제 없음의的空으로 방점을 찍고 있다. 그래서 피가 흥건한 전쟁터처럼 보이지만 자아에 대한 집착을 밝은 눈으로 관찰하여 집착을 끊도록 하는 눈뜸의 현상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력대선이 끓는 기름 솥에서 목욕하기 시험을 제안한다. 손오공이 먼저 기름 솥에 들어가 자맥질을 하며 목욕을 한다. 그러다가 작은 못이 되어 깊이 잠겨 들어가서는 쇠조리로 건져도 올라오지 않게 된다.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삼장이 기도를 하려 하는데 저팔계가 나서서 손오공에게 욕을 한다.

말썽쟁이 까불이 원숭이, 지혜 없는 필마온! 까불이 원숭이는 죽어 마땅하고, 필마온은 기름에 튀겨져도 마땅하지. 원숭이는 끝났고, 필마온은 뿌리가 끊어졌구나. 손행자가 기름 솥 바닥에서 저팔계의 시끄러운 욕을 듣다가 참지 못하고 본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렇게 벗은 몸으로 기름 솥에 서서 말하였다. ‘돼지죽이나 먹는 멍청아! 누구를 욕하고 있는 거냐?’ 삼장이 그것을 보고 말하였다. ‘얘야! 놀라서 죽는 줄 알았다.’ 사오정이 말했다. ‘큰 형님은 아예 가짜로 죽는 일에 이력이 났네.’<sup>32)</sup>

상식적으로 저팔계가 동고동락하며 서천행을 함께 하던 사형에게 이런 저주의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이 저주의 말을 살펴보면 그것이 찬양의 말임을 알 수 있다. 본래 서천여행의 핵심은 날뛰는 의지의 망아지[意馬]와 마음 원숭이[心猿]에게 올라타기를 씌워 단속하는 일<sup>33)</sup>이었다. 저팔계가 말하는 까불이 원숭이와 지혜 없는 필마온은 의지작용과 마음작용의 비유이다. 그런데 손오공이 기름 솥에 녹아버렸으므로 말썽부릴 마음작용과 의지작용이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시원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저팔계는 이렇게 완전한 없음[斷滅]을 도의 성취

30) 小和尚久不吃煙火食, 前日西來, 忽遇齋公家勸飯, 多吃了幾個饅饅, 這幾日腹中作痛, 想是生蟲. 正欲借陛下之刀, 剖開肚皮, 拿出臟腑, 洗淨脾胃, 方好上西天見佛. 『西遊記』(第46回)

31) 제7말나식은 제8식을 자아의 뿌리고 생각하여 여기에 기대어 我癡, 我見, 我慢, 我愛의 4가지 번뇌를 일으킨다. 末那, 唯識翻意. 或云執我, 亦云分別. 唯識宗云, 具足應言訖利瑟吒耶末那, 此翻染污意, 謂我癡, 我見, 我慢, 我愛, 四惑常俱故名染污. 常審思量名之為意, 思慮第八度量為我, 如是思量唯第七有, 餘識所無, 故獨名意. 法雲 編, 『翻譯名義集』(大正藏 54), p.1153a.

32) 闖禍的潑猴子, 無知的弼馬溫, 該死的潑猴子, 油烹的弼馬溫. 猴兒了帳, 馬溫斷根. 孫行者在油鍋底下, 聽得那猢猻亂罵, 忍不住現了本相, 赤淋淋的站在油鍋底道. 饞槽的夯貨, 你罵那個哩. 唐僧見了道, 徒弟, 謊殺我也. 沙僧道, 大哥乾淨推佯死慣了. 『西遊記』(第46回)

33) 意馬胸頭休放蕩, 心猿乖劣莫教豪. 『西遊記』(第19回)

로 보고 축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의 성취는 영생도 아니고 완전한 소멸도 아니다. 자아와 대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큰 죽음[大死]은 만법이 모두 부처임을 확인하는 큰 살아남[大活]으로 돌아 나오는 관계에 있다. 둘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손오공은 완전히 녹아 되살아난다. 팔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 무심이 아닌 것이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지각작용은 여전하지만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진정한 무심에 도달하였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여 집착과 그로 인한 어두움을 녹여낸 손오공으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양력대선이 기름 솥에 들어간다. 그런데 양력대선 역시 펄펄 끓는 기름 솥에서 자유롭게 목욕을 하는 것이었다. 손오공이 가만히 손을 넣어보니 펄펄 끓는 기름 솥이 얼음처럼 차가운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양력대선의 지배를 받는 차가운 용이 기름 솥을 식히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손오공이 북해용왕을 시켜 차가운 용을 잡아가게 하자 양력대선은 기름 솥에서 녹아 버리고 만다. 양력대선은 자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주를 구성하였지만 그 역시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양력대선을 포함하여 목숨을 잃은 세 도사는 나와 대상에 실체가 있다는 집착에 빠져 있다. 특히 자신들이 닦는 술법의 길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그것은 『법화경』에서 말한 성문, 연각, 보살승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고, 도교의 도사들에 대한 풍자이기도 하다. 사실 도교의 일부 교리는 개별적 존재의 영속을 그 핵심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일정한 수련을 통해 육신을 영원히 유지하는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불교적으로 볼 때 그것은 전형적인 외도이다. 한문으로 불전을 번역하면서 영원한 실체를 설정하고 수행에 임하는 인도 바라문의 수행자들을 仙人이라고 옮긴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들이 실체를 주장하고 스스로 영원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불교적으로 볼 때 모든 것에 고정적 실체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끝없는 작용과 변화, 그 자체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지금의 나에게 고유한 실체가 있다고 고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양한 인연과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을 즐길 수 있다. 기름 솥에서 헤엄을 치고 장난을 칠 수도 있으며 다양한 수행을 통해 자아를 녹여낼 수도 있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소승의 자아를 녹이는 수행에 전념할 수도 있고, 연각의 12인연 수행에 인연을 지을 수도 있으며, 육바라밀의 범문에 중생들을 태워 열반언덕으로 싣고 가기를 서원한 보살승을 실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이것들이 인연과 방편에 따라 설해진 것으로서 한결같이 一佛乘의 다른 이름들임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인연설법의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오직 자신의 길만 옳다고 집착할 때 호력대선, 녹력대선, 양력대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7. 결론

車遲國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에피소드들은 색공선의 청취[聞]와 사유[思]와 완성[修]에 대한 비유에 해당한다. 『서유기』에서 말하는 색공선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중도를 실천하는 참선이다. 그런데 이 車遲國의 승려와 세 도사와 국왕은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여 중도의 균

형을 상실하고 있다.

손오공은 시합을 통해 이들의 집착을 타파한다. 우선 자신들이 실천과제로 받은 수행법을 궁극의 실체로 고집하다가 그것의 노예가 된 승려들을 구하기 위해 그들이 매달리고 있는 수레를 부순다. 이를 통해 三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의 一佛乘의 귀결됨을 알도록 한다.

다음으로 三淸으로 상징되는 궁극의 숭고한 차원과 존재가 있다는 오류를 타파하기 위해 손오공은 삼청관의 신상을 측간에 빠뜨리고 도사들에게 오줌을 장생불사약으로 내려준다. 이것은 모두 육조혜능이 가르친 바, 對法의 적용을 통한 실천에 해당한다.

불교는 우순풍조,国泰民安을 약속한다. 그것은 표층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한다는 약속이 되겠지만 심층적으로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에 대한 눈뜸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손오공은 도사들과의 기우제 시합을 통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지혜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거둬 내려놓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이 시합에서 승리한다.

소승에서는 좌선수행을 통해 진리를 성취하는 주체를 설정한다. 아라한이 그것이다. 그러나 자아를 녹여 진리의 현장과 하나로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대승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아를 강화하는 세련된 길일뿐이다. 그래서 손오공은 참선시합을 통해 좌선이란 주체의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관찰의 충위를 다층화하여 대상에 대한 동화를 멈추는 일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자아에 실체가 없음을 인정한다 해도 대상은 어떤 불변의 실체를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좌선시합이 끝난 뒤 투시력시합이 이어진다. 손오공은 이들이 보물로 생각하는 사물들의 모양을 바꾸어 어떤 것이라도 모양을 가진 것이라면 그 실체가 없음을 드러내는 한편 지금 당장 드러나는 다양한 모양의 만사만물이 바로 진리의 담지체임을 알도록 한다.

의심의 여지없이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그 소중함 때문에 생명에 대한 다양한 집착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 손오공은 생명이 한 찰나조차 머무는 일이 없이 모양을 바꿔 나타난다는 점, 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은 빈 껍질 속에 자생하는 벌레에 해당한다는 것, 인연을 자신에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연 자체와 하나로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합을 통해 드러낸다.

## 【참고문헌】

- 吳承恩, 『西遊記』, 上海古籍出版社, 2004.  
\_\_\_\_\_, 『西遊記』, 長春出版社, 2005.  
오승은, 서울대학교서유기번역연구회 옮김, 『서유기』, 솔출판사, 2004.  
강경구, 『서유기와 마음의 이해』, 신아사, 2017.  
\_\_\_\_\_, 「西遊記의 花果山에 대한 불교적 독해」,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5.12.  
\_\_\_\_\_, 「西遊記 용의 출몰, 말나의 그림자」,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2.12.  
\_\_\_\_\_, 「西遊記 豬八戒 형상의 불교적 독해」, 『중국학』, 대한중국학회, 2016.03.  
\_\_\_\_\_, 「손오공과 諸神의 전투에 대한 불교적 독해」, 『중국학』, 대한중국학회, 2017.09.30.  
林宪亮, 「孙悟空官职——弼马温考」, 『中国典籍与文化』, 第72期, 2010.02.  
劉 緋, 「解讀『西遊記』禪宗的心性修煉」, 『安徽文學』, 2009年 第5期.  
寧榮生, 「『西遊記』精神分析之旅」, 『江西社會科學』, 2004年 第07期.  
孔刃非, 「孫悟空——唐僧的心靈幻影」, 『九江師專學報』, 2004年 第04期.  
요코하마 코이치 지음, 장순용 옮김, 『유식이란 무엇인가』, 세계사, 1996.  
방 룬 저, 김철수 역, 『유식학강의』, 불광출판부, 1993.  
김명우 저, 『유식삼십송과 유식불교』, 예문서원, 2009.

##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西遊記, 81難, 車遲國, 中道, 孫悟空, 對法		
	영문	Journey to the West, 81 trials, Che-Chi country, midway, Sun wu kong, relativity		
<div>A Buddhist Readings about Magic matches of the Che-Chi country in the Journey to the West</div> <div>Kang, Kyong-Koo</div> <p>The Journey to the west(西遊記) mainly deals with the 81 trials, that the monk Xuanzang(玄奘)'s travel group suffers from the traveling to India. These 81 trials symbolize the gradual steps that lead to the attainment of perfect truth, each episode having both self-completeness and contextuality. So from departure to arrival, the whole 81 trials form a large circular ring, and each episode becomes a small circular ring that fits into the big ring of the whole. It seems to be the result of accepting the two types of Chinese Zen: Zen of sudden-enlightenment &amp; Zen of Gradual practices.</p> <p>In this paper, we will analyze the magic matches in the Che-Chi country(車遲國). It includes raining matche, meditation matche, clairvoyance matche, and the matche of dead and Resurrection.</p> <p>In the Che-Chi country the monk, the three taoists, and the king obsessed with me and mine and are losing their balance of midway(中道). Sun wu kong(孫悟空) breaks down their obsession through the series of matches. First, Sun Wu Kong save the monks by breaking the carts. and he throw out the Statue of god into the toilet In order to break down the error of the ultimate sublime dimension and existence. This is the way of emphasize relativity(對法) of Hui-Neng(惠能). In the raining matche it teaches the way of put down obsession of the self, in the meditation matche it teaches the way of stop the assimilation with a subject, in the clairvoyance matche it teaches that all things have no substance, and finally in the matche of dead and resurrection it teaches that life appears in various forms.</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강경구 / 姜鯨求 / Kang, Kyong-Koo		
	소 속	동의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중국어학과		
	Em@il	kkkang@@deu.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11월 25일	심 사 일	2019년 11월 28일
	수 정 일	2019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5일